

‘섬 정책 컨트롤타워’ 한국섬진흥원 공식 출범

목포 삼학도서 오늘 출범식

3개 부서·8개 실무팀 35명 구성 이사장 정순관·원장 오동호 임명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 동지를 틀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목포시에 따르면 한국섬진흥원이 8일 목포 삼학

도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식 목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

한국섬진흥원은 지난해 12월1일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이다.

조직은 이사장과 원장, 경영지원실, 기획연구실, 사업운영실 등 3개부서 8개 실무팀 35명으로 구성됐다. 추후 50명 안팎의 인력으로 충원될 예정이다.

출범 초기 인력은 중앙부처와 목포시와 군산시

등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운영되며, 10월 채용공고를 거쳐 올 연말까지 인력충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섬진흥원은 지난달 7일 세종시에서 창립총회와 창립 이사회를 열고, 6명의 이사(당연직 2명, 임의직 4명) 선임을 완료했다.

또 초대 이사장에는 정순관 순천대 교수, 원장에는 오동호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임명했다. 한국섬진흥원은 섬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정책수립 지원과 평가, 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수행한다.

목포 삼학도 옛 항운노조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무실로 사용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섬진흥원은 그동안 행안부와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됐던 섬 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섬진흥원을 유치한 목포는 대한민국 섬의 수도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 박차



완도군이 한우 명품 브랜드육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은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중앙회, (주)뉴스티앤티, SNH농업회사법인과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유통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통합 브랜드인 완도자연그대로 한우를 사용하고 완도활력소 브랜드육 개발과 군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완도 한우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홍보, 완도활력소 브랜드육 사육 기반 구축 및 공급 확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판로 확보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통합 브랜드는 깨끗한 완도의 환경에서 바이오 기능수를 먹인 건강한 한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15일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앞으로 사포닌이 함유된 건강 기능성 한우 브랜드 ‘완도활력소’도 육성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퍼플섬, 보라색 아스타꽃으로 물들다

반월·박지도서 8~31일 축제

신안군이 8일부터 31일까지 퍼플섬으로 유명한 반월·박지도에서 ‘퍼플 향기속으로’라는 주제로 퍼플섬 아스타꽃 랜선 축제를 연다.

처음 개최하는 퍼플섬 아스타꽃 축제는 퍼플섬의 도로변과 아스타정원 등에 50만 주의 꽃을 심어 섬을 일주하면서 보라색 꽃들 속에서 퍼플섬의 향기와 가을의 운치를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퍼플섬은 안좌면 반월·박지도가 2015년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진행됐다. 섬 주민들이 이용하던 보행교를 정비하고 매력적인 보라색으로 색칠해 퍼플교로 재탄생시켰다.

건물의 지붕과 창틀,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라색으로 바꿨다.

섬 곳곳에 라벤더, 라일락, 집사꽃, 버들마편초, 아스타 등 보라색 꽃이 피는 수목을 심어 봄부터 가을까지 온통 보라색 꽃이 피는 이색적이며 아름다운 풍경으로 탈바꿈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퍼플섬으로 유명한 반월·박지도가 보라색 아스타꽃으로 물들었다.

<신안군 제공>

해남군, 농촌에서 살아보기·전남에서 살아보기 호응

도시민 농촌 체험 기회 제공

해남군이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전남에서 잘살아보기’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현산면 ‘풀 내음 힐링캠핑’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최대 6개월간 숙박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 6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하반기에는 8명이 참가해 숙소를 제공받아 거주하면서 농촌 체험, 지역탐색, 영농 일자리 체험과 함께 성공한 귀농·귀촌인 농장 방문, 지역민과의 교류 등 농촌에서 살아보는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매일

15일 이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원한다.

또 전남에서 잘살아보기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북평면 동해리 ‘김치마을’이 운영 마을로 선정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에 관심이 있고 이주를 고려 중인 도시민이 농·산·어촌 민박, 농·산·어촌 생활, 현장 체험,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상반기에는 10명이 수료했으며 하반기엔 4명의 참가자들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한옥 민박에서 숙박을 하면서 귀농 선배와 연계한 농가 체험 등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농촌 체험 사업을



해남군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현산면 풀 내음 힐링캠핑’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통해 귀농 귀촌인들이 이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희망의 시작인 땅끝 해남을 알리

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지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철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해영업본부 : 서해시 금곡동 기산디지털2로 14 대우테크노리온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